



“매연·세균 차단... 마스크 쓰고 운동해도 숨 안차요”

‘조금만 더 빨리 개발을 마쳤더라면..’

지난해 여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을 때 이창선 인텍 대표는 마스크 개발을 좀 더 서두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메르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마스크가 불타나게 팔렸지만 인텍은 새로운 마스크를 개발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었다. 마스크는 일회용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필터만 교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였다.

영성한 디자인·싸늘한 시장 반응
인텍은 플라스틱 사출업체로 2013년 7월 설립됐다. 플라스틱 가공 기술로는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이 대표는 좀 더 욕심이 났다. 인텍이 보유한 기술을 응용한 완제품을 내놓고 싶었다. 일회용이 아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개발에 나섰다. 이 대표는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09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마스크를 교체하거나 빨아서 써야 하는 게 너무 불편했다”며 “인텍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인텍의 기술력이라면 얼굴 형태와 잘 맞아떨어지는 플라스틱 마스크를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계산이 있었다. 필터는 벨



이창선 인텍 대표가 프리미엄 후아마스크와 캐릭터가 그려진 어린이용 마스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필터 교체로 반영구 사용
바이러스까지 막아
중국 시장 공략 '박차'**

크로(찍찍이)를 이용해 마스크 안에 붙이기만 하면 된다. 2013년 12월 첫 마스크가 완성됐다. 대형 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들을 따라다니며 제품의 장점을 설명했지만 뜻밖에도 반응은 싸늘했다. 공통된 대답은 “기능은 좋지만 디자인이 너무 형편없다”는 것. 이 대표는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에 나오는 살인마 제

이슨의 하키마스크와 비슷하다. 아이를 들고 충격에 빠졌다”며 “첫 제품 실패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는 값비싼 수업료가 됐다”고 말했다.

약국 편의점 판로 늘린다
이 대표는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전문 디자이너와 손잡고 작업하며 구조 개선과 디자인 혁신을 이뤄냈다. 지난해 여름 메르스 때문에 급증한 마스크 소비는 인텍이 개발 중인 마스크의 시장 수요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6개월여가 더 지난 올해 3월 인텍은 ‘후

아마스크’를 시장에 내놨다. 프리미엄 제품인 ‘오펜가드’는 도로 위를 달리며 매연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자전거 라이더에게 초점을 맞추고 개발했다. 스키마스크와 비슷한 디자인이어서 멋스러울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안면 부상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현장에 어울리는 ‘디펜가드’ 제품과 함께 어린이가 좋아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넣은 제품도 출시했다. 지난해 6월에는 인기 캐릭터 ‘라바’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해당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제품명 후아마스크는 숨을 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이디-맘디 트라이크 프리미엄 (031)591-0253 △인텍-후아마스크 (063)212-1539 △루미컴-눈의 피로감이 적은 플리커 프리 친환경 LED 조명 (063)211-3223 △스무지연구소-올인원 스마트 드론 메인보드 블루버 010-6755-7455

이마시고 내쉬는 소리에서 따왔다. 유해오염물질은 94% 이상 차단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대표는 “플라스틱 마스크에 필터를 붙이는 형태기 때문에 입과 필터 사이에 공간이 있어 일반 마스크보다 습취기가 편하다”며 “운동 중 착용해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텍은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11월 1만개 납품 계약을 마쳤다. 중국 시장 반응에 따라 월 10만개 이상을 추가로 주문하는 연간 60억원 규모 본계약을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이우상 기자 doi@hankyung.com

LG생명과학, 유니세프에 백신 공급

B형간염 등 5개 질병 예방
유엔타 907억원 계약

세프가 80여개국에 공급하는 백신 물량의 13%를 공급한다. 2018년에는 25%, 2019년에는 34%로 공급 물량 비중이 높아진다.

LG생명과학이 유니세프에 B형간염 뇌수막염 등을 예방하는 백신을 공급한다. LG생명과학은 유니세프의 2017~2019년 정규 입찰에서 5가(價) 혼합백신 ‘유엔타’를 장기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발표했다. 계약 규모는 총 8100만달러(약 907억원)다.

유엔타는 5세 미만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치사율이 높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뇌수막염 등 5개 질병을 동시에 예방해주는 혼합백신이다. 유니세프는 80여개국에 5가 혼합백신을 공급한다. 이번 입찰에는 LG생명과학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 LG생명과학은 내년에 유니

세프가 80여개국에 공급하는 백신 물량의 13%를 공급한다. 2018년에는 25%, 2019년에는 34%로 공급 물량 비중이 높아진다. LG생명과학은 진행 중인 범미주보건기구(PAHO) 입찰에서도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1억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5가 혼합백신 개발회사 가운데 국제기구 입찰 조건인 세계보건기구 사전적격심사(WHO PQ)를 통과한 곳은 LG생명과학, 안센 등 7개사에 불과하다. LG생명과학은 지난 2월 WHO에서 유엔타에 대한 PQ 승인을 받았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폐렴구균 백신과 소아마비, 6가 혼합백신의 상업화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mwise@hankyung.com



김대규 공간정밀 사장(오른쪽)이 반도체검사장비 부품을 소개하고 있다. 김낙훈 기자

반도체검사장비 부품부터 밤 까는 기계까지 문래동 장인들의 名品기술 ‘한자리’

21일까지 전시회

‘반도체검사장비 부품’ ‘자동회전 초박기계’ ‘예술성 가미한 금속제 팬이 ‘밤 까는 기계’ 등 서울 문래동 금속가공 장인들이 수십년간 갈고 닦아 만든 아이디어 제품과 첨단기술을 한눈에 보여주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다. 중소기업청 산하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한국소공인진흥협회가 지난 19일 개막한 ‘문래머시 낭벨리 시제품 제작 상담 및 전시회’에는 문래동 신도림동 양평동 구로동 일대 소공인 기업들이 출품한 120여점의 신제품 및 시제품이 선보였다.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21일까지 계속된다. 공간정밀은 멤스(MEMS-미세 전자제어)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검사장비 부품을 전시했다. 원통형 환봉을 얇고 균일하게 원판 형태로 가공한 제품이다. 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mm) 단위만의 허용하는 정밀가공 제품이다. 오리온식품기계는 자동회전초박기계, 거산정밀은 45초 만에 받침걸을 까는 기계, 재연은 각종 기어 및 나사류 등을 내놨다. 일부 기업은 염전에서 소금을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기계, 쉽게 펴고 접을 수 있는 등산용 스틱 등도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태승엔지니어링 우진정밀 자연지테크 국제금속상사 대성특수모터 진원엔지 등 120여개에 이른다. 각종 기계 부품을 비롯해 알약검사기 알약성형기 자동용접기 세발자전거 인쇄기계 등을 선보였다. nhk@hankyung.com

“노동시장 개혁은 中소엔 생존권 걸린 문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고용부 장관 간담회서 강조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급격한 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로 협력 중소기업의 부담도가 증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국화학공업협회 공동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

책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이중구조’로 고착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이 2차 협력업체 임금의 3.5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가 기록적인 유지를 위해 무리한 파업을 반복해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사진)은 “노동시장 개혁은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

차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시장 개혁 요구 외에도 일자리 창출·규제 완화·인력 양성·외국인 제도 개선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 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확대 등 25개 노동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바이오시밀러 약가, 24일부터 더 쳐준다

(건보 책정가격)

오리지널의 80% 수준으로 (R&D)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확정·시행되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는 기존보다 10%포인트 높게 약가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바이오시밀러보다 성능이 개선된 ‘바이오메터’는 원조 의약품 약가의 100~120% 수준으로 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항암제 등 혁신 신약은 기존에 해당 질병 치료에 널리 쓰이던 대체약의 최고가보다 10%까지 가격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신약 연구개발

이벤트 개최를 위한 신약 연구개발

YHB ECO 29년의 역사와 기술이

생활 주변 지긋지긋한 연기, 냄새, 미세먼지를 전기집진기가 약 제거, 민원해결을 해 드립니다.

음식점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냄새,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 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실 대응 해결책

공장/산업용 대형집진기

사출, 고무제품, 화학, 주단조, 용접라인 외 작업현장 오일미스트, 용접흄, 미세먼지 등 제거

차량 전기집진기 (CAR SMOG CATCH)

카센타, 정비공장, 검사장 외 차량스모그, 매연제거 용

특어출원

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 YHB 토발서비스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전화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2(오선동) 전화 062)952-6633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재동) 전화 063)835-4771